



## 관객과 함께 하는 마당극 축제 성주 성밖숲 '전국민족극한마당'

**요**즘 지난 시대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놓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해방 이후 제대로 청산해보지 못한 과거사를 이번 기회에는 시원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70, 80년대의 대학가에서는 일제시대부터 나라와 민

족을 팔아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려온 소위 '오적'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신명나게 엮어낸 마당극이 시대를 비판하는 의식을 담아 펼쳐지곤 하였다.

5·16쿠데타 10년을 맞아 유신의 심장부를 강타했던 김지하의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시(詩)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말고 똑 이렇게 쓰랴다.  
 내 어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러가  
 불기를 맞은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맞은 조동아리 손목뎡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예라 모르겠다  
 불기가 확확 불이 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이야길 하나 쓰것다.(중략)

이놈들의 배안에는 큰 황소불알 만한 도둑보가 걸붙어  
 오장칠보,

본시 한 왕초에게 도둑질을 배웠으나 재조는 각각이라  
 밤낮없이 도둑질만 일삼으니 그 재조 또한 신기(神技)  
 에 이르렀었다.

하루는 다섯 놈이 모여  
 십년 전 이맘때 우리 서로 피로써 맹세코 도둑질을 개  
 업한 뒤(후략)  
 (김지하의 '오적' 중에서)

판소리 장단에 맞추어 군사독재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부조리를 조목조목 큰소리로 읽어낼 때마다 '얼췌' 하  
 는 추임새와 함께 긴장과 신명이 교차하고, 판이 끝날  
 즈음에 자연스럽게 짜여지는 스크럼, 구호와 노래, 함  
 성 속에 벌어지는 시위와 투석전, 최루탄, 몸싸움, 비  
 명, 연행, 뿌려진 유인물들.

### 전통문화를 결합시킨 운동문화의 창조와 계승

사복경찰이 교내에 상주하던 시대에 마당극을 알리는  
 현수막은 투쟁의 준비가 이루어졌으니 마음을 다잡으  
 라고 하는 안내문이었고 또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  
 었다.

이처럼 마당극은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감시의 눈길

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부터 이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문화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  
 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외세 문화의 맹목적 수용을 강  
 요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소멸되어 가는 가면  
 극, 풍물, 민요, 판소리 등의 민족예술을 다시 활성화 시  
 키고 우리 전통 연희의 정신과 양식에 기초하여 건강하  
 고 생생한 현장의 삶을 담은 연희 활동을 위해 각 지역의  
 마당극패, 탈패, 연극 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 한  
 국민족극운동협회가 1988년 12월에 탄생하게 되었다.



민족극운동협회는 민족미학에 기초한 진보적 공연단  
 체들을 중심으로 모든 불평등, 차별, 소외를 거부하고  
 평화와 상생, 생명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치열한 예술적  
 고민 속에서 밝고 건강한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  
 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외국 이야기나 먼 과거의 이야  
 기가 아닌 우리 현재의 고민과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  
 는 창작품만을 고집스레 공연하고 있다.

이 협회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는 극단들의 작품을 공연하는 순수민간 연극축전



인 '전국민족극한마당'이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였다. 매년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모아 창작극만을 선정·출품하여 연극예술의 수준을 한껏 드높여온 민간 주도의 축제로, 이번 행사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경북 성주군의 성주 성(城)박물관과 성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렸으며 12개 극단 12개 작품과 24개 회원단체에서 약 3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였다.

198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문화의 중앙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3회 대회부터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청주, 원주, 제주, 인천, 목포 등을 순회하며 개최됨으로써 지역간 문화 교류와 더불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온 전국민족극한마당은 한국 유일의 진보적 야외공연예술제로 회원들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고 자체 제작하여 진행하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연극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주 성박물관에서 펼쳐진 '전국민족극한마당'

지난 2001년부터 성주군에 터를 잡은 한마당축제는 읍 소재지 외곽의 500년 왕버들나무로 이루어져 천연 기념물 제403호로 지정된 성박물관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지역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소풍장소로 이용되며 각종 문화 행사와 체육행사가 열리기도 하는 열린 광장이다.

이번 한마당행사의 개막극은 이 성박물관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연합 풍물패가 터벌임 한마당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행사의 성공과 무탈을 기원하는 탈극이 놀이패 '한두레'와 부산의 극단 '자갈치 전문 탈패' 연합으로 진행되었다.

채희완 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은 대회를 통해, "이 잔치판은 지난 세월을 논하자는 판도 아니며 놀자고만 모인 판도 아니다. 지킬 것과 경계할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한마당은 모두를 위한 판이며 모두가 주인 되는 판

- ▲ 문정현 신부를 단장으로 하는 평화바람의 개막 축하공연
- ▲ 500년 왕버들나무 아래서 펼쳐진 정공철의 '식살림'
- ▼ 극단 갯돌의 '암태도'

이다.”라며 마당극이 갖고 있는 시대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어서 개막을 축하하는 노래패 ‘소리 타래’의 공연과 문정현 신부를 단장으로 하는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특히 반전평화를 주제로 공연한 ‘평화바람’은 ‘기특한 과자’ ‘종이비행기’ 등 최근 언더그라운드 유행가를 반주도 없이 힘차게 불러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4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의 공식 참가작으로는 큰들문화센터(진주)의 ‘여자, 죽자, 살자’, 민족예술단 우금치(대전)의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 극단 놀이패 열림터(청주)의 ‘집’, 극단 함께사는세상(대구)의 ‘안심밭 망각행’, 놀이패 한라산의 ‘사월굿, 섬 사람들’, 신명아트센터의 ‘도깨비난장’, 광대패 모두골(원주)의 ‘밥굿’이 공연되었다.

또한 극단 갯돌(목포)의 ‘나비 까망이’, 신동호 1인극 ‘어느 노교사 이야기’, 대전 마당극단 좋다의 ‘누가’, 유순웅 1인극 ‘염쟁이 유씨’, 장소익 1인극 ‘부네굿’, 정공철 1인극 ‘제주굿’ 등이 펼쳐졌다.

올해에는 예년의 무료공연 위주에서 유료공연으로 전환하였지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티켓을 현금뿐 아니라 농산물 등 현물로도 구입가능토록 한 ‘티켓 바자회’를 준비한 것도 올해 행사의 특징이다. 당일 티켓과 교환된 물건들은 다음날 바자회 형식으로 판매한다는 아이디어였으나 홍보나 인식 부족으로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각 공연에는 마당극 특유의 성격 탓도 있어 관객의 참여도가 대단히 높았다. 임시로 만든 약 600여 명을 받



폐막공연으로 진행된 광대패 모두골의 ‘밥굿’

아들일 수 있는 마당극 공연장은 매일 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공연이 만원에 가까운 관람자를 끌어들이었다.

### 관객의 참여도가 대단히 높아

이와 함께 민족극한마당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참관 프로그램’은 전국의 대학생, 특히 탈패, 풍물패, 연극반 활동 대학생들이 행사기간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공연을 함께 보고 워크숍, 토론회도 여는 등 공연 진행에 보조로 참가, 현장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연극교실과 춤과 움직임, 마음을 주제로 한 워크숍, 전문예술인과 학생이 참여하는 광대난장 등 문화와 교육을 결합시킨 종합예술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한 면이 돋보였다.

민주화운동 기념관의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하나 하나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운동문화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던 마당극을 청소년을 위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도구로서 동시에 한국 민주화운동과 운동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금식)